

# 세월호 소식나눔

##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 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 7월의 주요 활동

7월 10일(일) 시청 옆 Dilworth Plaza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SaltSoul' 팝업공연 참가 및 피켓팅

소식지와 기억물품 나눔 일정:

7월 16일(토) 어퍼다비 H마트

7월 17일(일) 챌튼햄 H마트

7월 21일(목)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7월 31일(일) 체리힐 H마트

### 참여와 후원

필라세사모의 세월호 기억하기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후원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philasewol@gmail.com](mailto:philasewol@gmail.com)

전화 : 267-475-7132, 814-777-4379

Paypal: [philasewol@gmail.com](mailto:philasewol@gmail.com)

[www.facebook.com/philasesamo](http://www.facebook.com/philasesamo)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

### 세월호 가족들은 왜 또다시 거리로 나왔을까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은 2016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8일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한여름 열기와 장맛비가 번갈아 쏟아지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노숙 농성, 세월호 가족들도 참사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인데, “세월호 가족들은 왜 또다시 거리로 나왔나?”며 의아해하는 동포들도 많습니다.

### 정부는 왜? 청와대는 왜?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정작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2년이 넘도록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것일까요? 왜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으려는 걸까요? 왜 세월호를 인양하지 못하는, 또는 않는, 것일까요? 왜 세월호 보도를 통제했을까요? 구조를 하지 않았던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세월호를 대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태도야말로 ‘왜’냐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왜 또다시 거리로 나왔을까요?

2016년 6월 25일, 세월호 참사 802 일째 되는 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650여 만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6월 말로 강제종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5월 30일 행정자치부, 6월 8일 기획재정부, 6월 10일 해양수산부 등 세 개 정부 부처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강제종료를 뜻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에,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을 시작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아직 바닷 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인양자문업체의 사전 테스트 권고를 무시한 채 부실한 인양계획으로 선수 들어올리기 작업을 시도했다가 선체에 훼손만 남기고 인양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세월호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 이 핵심 증거물을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 시키려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 들어가는 문제"라며 특조위 활동 보장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대통령 7시간) 조사를 빼주면 세월호 조사기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방해로 중단시키고, 세월호 특조위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가능토록,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 4.16연대카드뉴스 6월 27일자)

### 故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추모하며

(글 : 김태형)

예수가 태어나신 2000 여년 전, 유대인들의 삶도 오늘날 일반 대중의 삶만큼이나 무척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통치아래 가난과 핍박속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못된 무리들을 혼내주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헛된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좌,우의 주요자리에 앉게 되도록 부탁하기도 합니다. 일상이 힘겨운 이들이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희망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식들이 그 안에서 좋은 자리를 꿰차 권력의 주류가 되길 청탁하는 모습은 오늘날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염원과 달리, 예수님은 강력한 군마나 엄청난 부 또는 권력을 갖지 않고, 연약한 우리네 모습과 똑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당당히 진리를 말하셨고, 이런 진리를 불편하게 여긴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흑세무민(惑世誣民) 같은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와 같이 미디어가 발달했다면, 권력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온갖 조롱과 거짓을 덧씌워 전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올까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 화려한 경력을 지닌 사회혁명가? 모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공언하는 성공한 기업인? 어쩌면 이 시대 가장 핍박받는 약자의 일원으로, 법과 사회질서, 도덕이라는 관념의 외피를 두른 기득권자들에게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고난 당하시고, 온갖 오해와 거짓된 비난으로 정신마저 피폐해지는 그런 수난을 받진 않으실까요?

최근 김관홍 잠수사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이 분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잠수사로서 생업을 내려놓고, 희생자 수색과 시신인양에 동참했습니다. 바닷속에 잠못든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위험한 잠수를 감행했고, 어둠 속에 얽혀있는 시신을 달래어 한 명 한 명 안아서 인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이 상하여 더이상 잠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둠 속 시신수습이라는 극한 경험은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나와 누구도 말하기를 주저하던 당시 세월호 상황의 진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의 짧지만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고통과 온갖 수난 속에서도 진리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백성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었던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예수님을 떠나보는 것 같아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인이 영원한대로,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건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덧붙임 : 고 김관홍 잠수사의 아내와 어린 세 자녀에게 함께 사는 희망을 보태주십시오. (농협 356-0661-7708-03 김혜연 (고 김관홍 잠수사 부인))

## 정부는 왜? 청와대는 왜?

구조부터 진상규명 활동까지, 지난 2년 여 간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에 대해 거짓과 방해, 그리고 탄압을 통해 '세월호 지우기'에 급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예산배정, 실제 조사활동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특조위의 조사로 청와대, 국정원, 구조지휘라인 등 이른바 '성역'에 숨겨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해경 CCTV와 교신기록과 구조지휘 워선 수사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지휘 라인을 수사함으로써 해경-국정원-청해진해운의 커넥션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조위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특수관계와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정부의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조위는 2015년 10월 19일, 사고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조지휘라인의 최고 워선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특조위 내 새누리당 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불사하며 반대했습니다. 정부-해수부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 조사를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를 배제하라며 야당과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결국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강제종료 시킨 것입니다.

4.16연대는 정부와 청와대가 특조위를 해체함으로써 성역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세월호 지우기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말 위기를 벗어나고, 퇴임 후 청와대 책임자 진상조사와 수사를 벗어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 4.16연대 카드뉴스 7월 7일자 "청와대는 왜 '세월호' 끝내기 수순에 돌입했나?")

##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2) 잊지 않기 위해 춤을 추는 안무가 김정웅



7월 10일, 딜위쓰 플라자에서 솔트소울(SaltSoul) 팝업공연을 진행 중인 김정웅 안무가 (사진 : 김정웅 제공)

지난 7월 10일 오후, 필라델피아 시청 분수대 앞에서는 시민 백여 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안무가 김정웅씨의 <솔트소울>(SaltSoul) 팝업공연이 진행되었다. <솔트소울>은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퓨에술 문화센터(Pew Center for Arts and Heritage) 창작지원기금과 아시안 아츠이니셔티브(Asian Arts Initiative)의 후원으로 제작되어, 오는 10월 아시안아츠이니셔티브에서 발표될 작품이다. 이번 팝업공연은 10월 공연에 앞서 미리 관객들과 짧게 만나보는 서막에 해당한다.

공연은 딜위쓰 플라자 분수광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공연자들 간의 교감으로 시작되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을 깨는 태평소와 바닷속 울림 같은 색소폰 소리에 공연자들은 서서히 침몰하는 세월호를 표현했다. 필라 세사모 회원이기도 한 손정례 할머니(89)는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곧, 놀던 아이들도 하나 둘 공연자들을 따라 움직이고, 광장의 사람들은 조용히 공연에 집중했다. 무슨 공연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을 위해, 세월호와 공연을 설명하는 전단지들을 광장 한켠에서 나누기도 하였다.

###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경험 답아

<솔트소울>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상실의 경험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작품의 모티브는 30년 전 교통사고에 의한 아버지의 죽음, 2012년 필라델피아 시내 건물 붕괴사고,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세 사건을 겪은 김안무가 자신의 경험이다. 특히 김안무가는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담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살이 떨리는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 다큐멘터리 <세월호 그 후> 제작을 후원하세요!



롯 매튜, 조지 닐, 모리스 데이비드 등 영국 영화인들이 세월호 다큐멘터리 <세월호 그 후>를 제작 중입니다. 영화는 참사 후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조명합니다. 2017년 4월 완성을 목표로 촬영은 중반 이상 진행되었으며, 주요 유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현재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롯 매튜 감독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텀블벅(tumblebug) 프로젝트 밀어주기를 통해 제작비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slicedpictures.wix.com/afterthesewol](http://www.slicedpictures.wix.com/afterthesewol)

[www.tumblebug.com/afterthesewol](http://www.tumblebug.com/afterthesewol)

###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필라세사모의 월간 <세월호 소식나눔>지는 매월 둘째 주말에 1,000부씩 발행, 배포됩니다. 지역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월호 소식과 진상규명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뜻 있는 후원자/단체, 사업체들의 광고를 신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484-557-0531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를 기억하는 팝업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김정웅 제공)

(3면에 이어) 세월호 참사 직후의 그 충격을 담아, 김안무가는 2014년 10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전미 아시안 아메리칸 공연예술제(Asian American Theater Festival)에서 <전복>(Capsized)을 공연했다.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마리온 라미레즈(Marion Ramirez), 안무가이자 타악기 무용가인 저메인 잉그램(Germaine Ingram), 필름메이커이자 비디오그래퍼인 프레드 햇(Fred Hatt), 작곡가이자 색소폰 연주자인 밥 레이니(Bhob Rainey) 등 필라델피아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솔트소울>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팀에 한국 전통악기 연주자이자 전방위 예술가인 가민이 합류했다.

### 세월호, 예술(춤)로 공유할 방법 모색해

<솔트소울> 공연을 통해 보다 많은 세계 시민들이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건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면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예술(춤)로 공유할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생의 입장, 부모의 입장, 한국 국민들의 생각,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골고루 반영하려고 노력하죠. 공동작업자들과의 세월호 토론을 통해 더욱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작품을 통해 세월호를 알아가고 세월호 문제를 전파해 주기를 바라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알려갈 것입니다.” 그의 바람은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아져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본 이들이 다음 공연에 참가하는 형태로 ‘팝업 공연’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내 다양한 도시에서 유사한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춤을 추는 진실한 마음, 세월호 가족들에게 전달되길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진실한 마음이 한국의 유족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외국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춤을 추는 까닭이다.